

<第173~176回>



이탈의 優秀發明

<發明獎勵部>

<第173回, 9月 18日>

『工具 바이스』

물림쇠 多樣化로 工作效率 높여

이 考案은 金屬加工物을 切斷하거나 구멍을 뚫을때 사용하는 工具바이스의 可動體를 十字形으로 形成, 이를 1段씩 回動시켜 十字形 可動體의 各端部에는 자기 다른 물림쇠를 螺着하여 工作物의 種類와 形態에 따라 알맞는 물림쇠를 選擇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바이스(考案者: 신경호)에 관한 것으로서 세동산업주식회사에 의해 登錄되었다.

從來의 바이스가 本體와 可動體의 端部에 網絲 무늬의 물림쇠를 固定시켜서 加工物의 종류나 形態가 어떠한 오직 똑같은 물림쇠로만 加工物을 집게되어 있어 加工物이 넓적한 兩面으

로 된 것은 물리기 쉬우나 둥글거나 그밖에 變形體일 경우에는 加工物을 所望스런 姿勢로 固定시켜 놓고 加工하기가 매우 不便하였다.

그러나 이 考案에서는 종래의 이러한 欠陷을 是正, 加工物의 種類나 形狀에 따라 알맞는 물림쇠를 選擇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림쇠의 形狀을 多樣하게 만들어 及意로 着脫, 利用할수 있게 한데에 實用新案으로서의 意義를 지니는바 鐵物加工業에 널리 普說, 活用이 期待되는 考案品이다.

<圖面說明>

1. 回定本體 2. 물림쇠 3. 支持너트 4. 移動나사軸
5. 流動體 5'. 接面部 6. 凸홈
7. 可動體 7'. 接面部 8. 구멍 9. 스프링
10. 볼 11. 물림쇠 12. 軸動링 13. 結着具
15. 回動具 16.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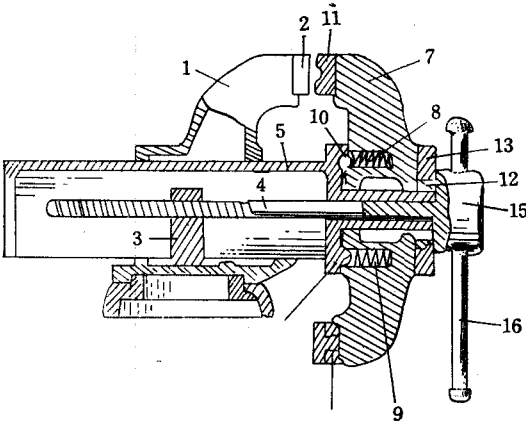
<實用新案登錄 第14057號>

<第174回, 9月 25日>

『回轉子軸부근에 非磁性體를 使用한 電動機』

延世大 吳相世教授, 効率 7% 增大

이 發明은 圓柱方向의 主旋輪에 直角의 旋輪을 두어 서로 干涉이 없도록 하고 位相變化하는 Leakage Reactance를 減少시켜 位相變化를 적게하는 非磁性體를 사용한 電動機에 관한 것으



로서 吳相世(延世大學校 教授)씨에 의해 開發 登錄되었다.

從來의 電動機나 發電機에서는 電氣子 또는 回轉子の 負荷電流의 增加로 反作用이 증가하여 機能이 低下되는 傾向이 있는데 이것은 固定子 와 회전자의 捲旋方法이 變壓器의 권선방법과 달라서 圓柱方向으로 1, 2次로 권선되어 있어 空隙의 자속에 위상변화가 甚하여 漏泄자속이 증가하고 波形에 distortion이 있어 有效자속이 減少되어 저하되는 缺點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발명은 위와 같은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전기자의 環狀鐵芯의 Slot에 주선분과 短絡旋輪을 設置하되 이 단락선분의 한편은 非磁性體 안으로 두는 環狀捲으로 하고 단락선분에 誘導되는 變壓器 氣磁力가 전기자간자기자력을 輕感시킨 것으로서 단락선분으로 因하여 위상변화가 없고 공극의 자속분포가 均等하므로 有效자속이 증가하여 效率이 증가함과 동시에 負荷電流가 低下되며 溫度上昇을 減少하게 한 것으로서 위상변화와 파형의 distortion이 發生하지 않아 편자작용이 없어 磁氣中心點이 移動하지 않으며 整流作用이 잘되어 壽命이 延長되고 有效자속이 증가하므로 出力이 증가하고 效率을 7%增大시킨데에 發明特許로서의 意義를 지닌다.

<特許登錄 第5846號>

<第175回, 10月2日>

『電話交換機用 時限絶斷裝置』

東洋精密, 一定時間 自動遮斷시커

이 考案은 電話發信加入者가 市外回線을 占有한 後 受信加入者의 應答을 기다리며 長時間回線을 絶斷하지 않을 경우, 또는 雙互通話가 끝난후 發信加入者의 不注意로 一定時間까지 回線이 절단되지 않을 경우 自動的으로 회선을 절단시켜 주는 電話交換機用 時限絶斷裝置(考案者: 김성진)에 관한 것으로서 東洋精密工業株式會社(代表: 朴律善)에 의해 登錄되었다.

從來에는 發信加入者가 市外回線을 捕捉한 후 受信加入者의 應答을 기다리며 長時間 電話를

끊지 않거나 通話가 끝난후 不注意로 발신 가입자가 受話機를 제대로 놓지 않아 회선이 끊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계속 시외회선을 포착하게 되므로 시외회선의 利用上 莫大한 損失을 가져 왔을 뿐 아니라 수화기를 잘못 놓았을 경우에는 度數가 계속 登算되기 때문에 발신가입자측에도 被害를 주었다.

그러나 이 고안은 위와 같은 缺陷을 없앤 것으로서 公知의 市外回線을 中繼機의 適切한 位置에 設置하게 되므로 受信者의 應答이 없거나 통화후 수화기를 잘못 놓았을 경우에도 一定時間後 回線을 自動絶斷시키기 때문에 시외회선의 利用을 效率化할 수 있게 한 데에 實用新案으로서의 意義를 지닌다.

<案用新案登錄 第15089號>

<第176回, 10月 9日>

『風向調節扇風機』

大元電器, 左右上下로 任意調節

이 考案은 風向을 左右上下 任意的 方向으로 調節할 수 있는 風向調節扇風機(考案者: 강정희)에 관한 것으로서 大元電器産業株式會社(代表: 金大元)에 의해 登錄되었다.

이 고안은 長方形函體內에 常用的인 扇風機를 內設하여 바람부는 方向을 左右로 流動시킴과 同時에 上下로 分離하거나 上部나 下部로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誘導할 수 있게 고안한 理想的인 風向調節手段을 가진 선풍기인바 從來의 선풍기는 모우더에 軸設된 팬(Fan)과 같이 모우더胴體가 左右로 流動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왔으나 이러한 在來式은 風向轉換範圍가 限定되어 있어서 바람의 방향을 上下部로 同時에 유도하지 못하는 탓으로 선풍기의 支桿을 높이거나 낮추어야하는 不便이 따랐다.

그러나 이 고안에서는 在來式의 불편함을 是正하기 위하여 函체내에 있는 선풍기 자체는 固定시키고 바람의 방향을 任意的 方向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橫調節板과 縱調節板으로 構成하여 作動시키도록 꾸몄다.

<案用新案登錄 第15014號>